

제공일자	2013. 5. 6(월)	담당자	송윤아 연구위원, 전성주 연구위원
홍보담당	김세환 부장(3775-9051)	연락처	02-3775-9025, 010-4111-4019 총2매

제목 : 전통적 재보험의 한계와 보험연계증권의 성장

- 보험연구원(원장 강호)의 송윤아 연구위원과 전성주 연구위원은 『전통적 재보험의 한계와 보험연계증권의 성장』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(계간 보험동향 2013년 봄호 테마진단).
- 1994년 Hanover Re가 처음 대재해채권을 발행한 이후 보험연계증권(이하 ILS라 함)은 세계 재보험담보의 약 14%~17%를 차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며 전통적 재보험을 대체 또는 보완하고 있음.
 - ILS는 보험리스크를 자본시장으로 전가하는 다양한 유가증권을 의미함.
 - ILS 투자전문 자산관리 회사인 LGT는 ILS 등이 2014년에는 적어도 생·손보 재보험시장의 22%, 2016년에는 25%를 차지하면서 전통적 재보험의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전망함.
- 지난 20여년 동안 ILS가 재보험시장에 충분한 자본을 제공함으로써 재보험요율 인상 모멘텀을 약화시키고 재보험시장에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기존 재보험회사를 위협하고 있다는 시각이 존재함.
 - 실제로 재보험회사는 극단적 보험리스크 사업에서 그리고 대재해 이후 공급자 중심 시장에서 높은 요율과 함께 많은 이윤을 남겼으나 ILS를 통해 시장에 자본이 넉넉해지자 이러한 이윤을 기대하기 어렵게 됨.
 - 최근 골드만삭스는 세계적인 재보험회사인 버뮤다 소재 Renaissance Re에 대한 평가를 ‘매수추천’에서 ‘중립’으로 하향조정하면서 비전통적 재보험에 의한 신규 자본 유입을 그 이유 중 하나로 언급한 바 있음.

- 반면, ILS는 ① 재보험시장에 추가 담보력을 제공함으로써 대재해 이후 재보험요율을 안정시키고, ② 원수보험회사에 전통적 재보험 이외의 위험전가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재보험회사와의 협상력을 강화하며, ③ 재보험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지급불능리스크를 줄이는 것으로 평가됨.
- 그동안 보험회사는 재보험회사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우려와 기대손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재보험요율 때문에 극단적인 보험리스크를 전통적 재보험을 통해 헤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음.
- 한편,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해 이란산 원유 수송선에 대한 EU의 보험 제공 금지 조치로 인해 대혼란을 겪은 후 담보력 확충수단의 다변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.
- 이외에도 대재해 빈발과 그로 인한 재보험수요 증가 및 세계 재보험 시장 경성화 가능성, 재보험 신용리스크 상존, 보험산업의 자본중심 규제 강화 등은 담보력 확충의 필요성과 담보력 확충수단의 다변화 필요성을 제기함.
- 우리나라의 경우 법규 및 인프라 미비로 인해 ILS 도입이 더딘 것으로 판단되며, 장기적인 관점에서 담보력 확충수단의 다변화 및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ILS 도입이 가능한 환경 조성에 힘쓸 필요가 있음.
- ILS가 발행되어 자본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시장가격이 형성되어야 하며,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손실예측을 제공할 수 있는 통계자료와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 및 지표, 그리고 전문인력이 필요함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kiri.or.kr>